

충남도, 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4조 6,920억원, 사업발주 2,966억원



충남도는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55%인 4조 6,920억원을 배정했으며 사업발주도 2천 966억원을 집행하는 등 전국 16개 광역단체중에서 제일 우선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행정안전부의 경제극복추진을 위한 긴급회의 후 도 기획관리실장(최두영)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16개반 50명이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가 경제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이완구 지사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에서 200만 도민과 공직자에게 내년의 도정 운영방향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둘 계획이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 금강 살리기 사업 시동

- 금강 살리기 사업 기획단(T/F팀)구성 등 발빠른 행보



충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을 백제문화와 생명이 흐르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1월 19일(월) 도청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도 및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 기획단(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공주(곰나루), 부여(합정) 지구를 2010 대백제전 수상무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이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 인접지역에서 문화·관광단지 추진시 수변공원 설치 등 하천정비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하천 점·사용허가의 갱신·신규 허가 등은 조건부 또는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완 도 행정부지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 역사테마파크 첫 삽 뜨다!

- 백제역사재현단지 롯데콘도미니엄 기공식



롯데의 민자사업 착수를 알리는 기공식이 1월 22일(목) 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지 현지에서 열렸다.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부여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첫 삽을 뜬으로써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행여 투자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말끔히 씻을 수 있게 되었다.

롯데는 총 3천100억 원을 투입하여 5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물원, 놀이공원, 친환경농업공원, 생태공원 등 테마파크 시설, 18홀 골프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4계절 전천후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착공하는 콘도미니엄은 322실의 객실과 컨벤션, 세미나, 아쿠아, 사우나시설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숙박과 휴양,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으로 건설기간 중 8천여명의 고용과 1조 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파크가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활성화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롯데를 비롯한 국내 유수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백제문화 세계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강화 적극 추진

- 「도와 시·군 예산 중 680억을 절감하여, 일자리 1만 4천개 추가 창출, 긴급복지지서 비스 2만 가구 지원키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 민간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산의 절감으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이른바 신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공동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있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2월 10일 도와 시·군의 기존 예산에서 68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법정보호대상자 외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한 기업근로자 등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지원 등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위기 가정 희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장·군수와 14개 민간단체장도 함께 했다. 한국노총충남본부, 충남새마을회, 바르게살기충남협의회, 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참석한 민간단체장들은 금년도 충남도 예산에 계상된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스스로 줄여서 지원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분위기가 충남도내에 조성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번 대책은 도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

가 있다.

도와 시군은 금년도 예산 10조 3,539억 원(도 3조 8,641, 시군 6조 4,898)중 국고보조사업, 채무상환, 법적의무적경비 등 절감이 불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1조 2,302억 원(도1,362, 시군 1조 940)을 대상으로 기존 예산을 정밀 재검토하여 이중 5.5%인 680억 원(도 100, 시군 580)을 다시 절감하기로 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예산은 이미 지난해 말 편성 당시 예년에 비하여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지만 금번 도와 시군이 수범을 보이는 취지에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 것이다.

이번 예산절감은 도와 시·군, 민간단체에서 예산 낭비요인 발굴과 행사경비 등을 절감하였다. 특히 도비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을 일부 반납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하였다.

절감된 예산 중 400억 원은 우선 일자리 추가 창출에 사용된다. 기업 휴폐업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는데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되, 일회성 소모성 사업이 아닌 기업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 법정 보호대상자 외에 가장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위기가정 2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화재사망 으로 생활이 어려운 신 빈곤 가구이며, 이들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별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지원,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그간 도내 공업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을 농고와 수산고 등 도내의 모든 전문계 고교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방문 한글교육(천안시),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공주시), 저소득수급자녀 수학여행비 지원(보령시) 등 각 시·군별 실정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시책도 발굴되어 추진된다.

道,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이 만족도 가장 높아

- 道内 172개 외투기업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72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충남의 기업 환경 중 긍정적인 요인으로 ▲비즈니스 관행 개선 ▲배후시장 확장 가능성 ▲노사관계 안정성 ▲조세감면 등 행정기관의 서비스 향상 ▲인접지역 연계교통 편리(도로·철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해요인으로 ▲관리직 및 생산직 인력수급 애로 ▲개별입지시 높은 토지가격 ▲해외금융이용 불편 ▲해상교통과 국제항공 이용 불편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부족 ▲외국인 전용 의료·교육 시설 부족 등이 개선할 과제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최초 투자년도를 기준으로 89년 이전 7개, 90~99년까지 31개, 2000~2004년 17개, 2005년 이후 18개로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 중·대규모 기업도 28개사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형태의 경우 응답기업 73개소 중 ▲본사만 있는 경우 2개 기업 ▲공장만 입지 17개 기업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기업이 54개소(73%)로 투자기업 대부분이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에서는 ▲자체 연구소를 갖춘 기업이 25개 기업, 연구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15개소,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이 17개소, 기타 16개소로 조사됐다.

입지 선정시 고려 요인으로 ▲관련 국내기업 소재지와 근접성이 가장 높았으며 ▲세금 감면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생산제품 판매 주력시장은 ▲국내시장이 71%로 주로 지역 내 대기업에 65% 혹은 전국에 중간재 또는 원부자재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및 원자재 조달은 ▲해외와 국내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북에서 76%이상을 차지하고 해외는 절반 가까이(46%)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및 홍보 관련 개선과제로 ▲부지매매에 따른 자본이득(1%)은 입지 선정시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설문(인터뷰)에서 밝혀짐에 따라 개별입지보다 임대용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및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부품 및 원자재 조달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에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既 진출 기업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등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인력수급을 위한 지역대학생 대상 도내 외투기업 홍보강화 ▲도내대학 졸업생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해상운송 노선확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연계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어 가능 의료기관 지정 및 정보제공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교육 및 교육시설이 확충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평을 요구한 결과 10점 만점 중 6.7점 평점을 기록하였으며 기업들은 외국인 지원제도 중 입지지원 제도와 지방세 감면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道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 및 2008외투기업 CEO 간담회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환경 개선 과제와 관련된 실국과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력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

-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
- 시·군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진단·자문 역할



충남도는 시·군 공공디자인사업의 진단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하고 2월 23일 이원구 도지사, 강태봉 도의회의장, 센터 관계자 및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소식과 함께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설립 목적은 현재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청도내 시·군 자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리며 역사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활약이 기대된다.

설립 장소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의 공공디자인센터이며 센터장, 사무국장, 도내 6개 생활권역 지부별 2~3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식사를 통해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과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역할 설명을 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공공디자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운영 기본방침을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 지사는 자문위원과 운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축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효율 중심의 개발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문화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디자인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말하고 “이러한 때에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세계 명품 도시를 둘러보면 가로시설물과 건물 배치, 공원 조성 등 도시 전체가 세심하게 배려한 공공디자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한결같이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으로 가꾸어져 있다”면서 “지금 우리도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백제역사의 숨결과 문화를 접목시킨 명품 충남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소식 후에 이어진 공공디자인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충청남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온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온영태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간 환경 디자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력형 설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충청남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클리닉센터를 설립한 것은 충남의 공공디자인 추진 의지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이며 충남 공공디자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충남도, 『녹색성장 포럼』 창립식 가져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Think Tank 역할 수행



충남도는 3월 6일 아산시 호서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기업인, 사회단체, 도민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창립식을 가졌다.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나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창립식에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만의 환경부장관, 강태봉 충청남도 의회의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 강일구(남, 65세, 논산) 총장을 포럼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세계에서 최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은 필연이자 숙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녹색성장포럼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구 지사가 건의한 내용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석면광산 추가 피해방지대책 조속 추진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정화사업 ▲아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지원 ▲폐기물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지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 등이다.

한편, 오늘 구성된 충청남도 녹색성장포럼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내에 사무국을 두고 매 분기별 포럼을 개최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등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